

# 발전노동자

민주노조 사수  
전력산업공공성 강화  
애고자 원칙복직  
임금체계개악 저지  
생존권 사수

제207호

발행인: 신현규  
발행일: 2015.09.22



## 9.13 노사정 야합은 현대판 《노예계약서》

### 노동자 영혼을 팔아버린 한국노총

9.13 노사정 야합은 지금까지 정부가 언감생심 언급조차 못했던 중장기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까지 합의함으로써 법제화의 길까지 터주고 말았다. 사실상 저성과자 해고제와 사용자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권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회사가 마음대로 취업규칙을 변경해서 성과주의 임금체계(성과연봉제)의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적, 금전적 부담 없이 저성과자들을 마음대로 해고하겠다는 것이 정부와 자본이 바라는 바였고 한국노총은 이러한 노예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어용의 태생적 본질을 다시 한 번 스스로 확인시켜 줬다.

#### 1. '쉬운 해고'- '맘대로 해고' 보장

- ✓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마련 근거 확보
- ✓ 채용-승진-해고 등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 전면 확대
- ✓ '제도개선 방안 마련' 언급  
: 근로기준법 개정 등 법제도 개악의 길 터

#### 2. 임금피크제-취업규칙 변경 보장

- ✓ 임금피크제 도입
- ✓ 성과주의 임금체계 개편 길 터주는 가이드라인 보장

#### 3. 통상임금 범위 축소

- ✓ 정기성-일률성-고정성까지 기준에 포함
- ✓ 기준 제외 시행령에 위임 : 노동부 입맛대로

#### 4. 그 외에도 개악안 수두룩

- ✓ 특별연장근로 8시간 허용, 탄력근로 단위 기간 확대 등 노동시장 대폭 연장
- ✓ 청년고용-원하청 공정거래 등에 대한 재벌책임 언급 전무
- ✓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업종 확대

### 9.13 야합이 제도화 될 경우 우리의 현실은...

#### 9.13 노사정 합의, 그리고...나는 해고됐다.

나는 해고됐다. 나는 직장인이다. 나는 직장인...이었다. 일도 열심히 하고 상도 많이 탔지만 사장은 나를 싫어했다. 가끔 입바른 소리를 했는데 그 때문일까? 회사는 특하면 회사의 법인 취업규칙을 마음대로 바꿨다. 임금피크제가 시행됐고 각종 수당은 사라졌으며... 기타 등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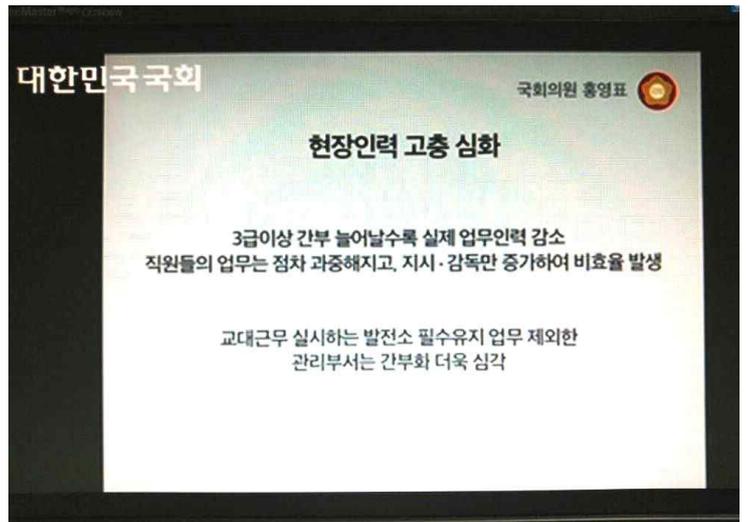
좋은 것도 쯤 해주면 좋았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규칙을 마음대로 바꾸는 게 어딴냐고 따져 물었을 때 회사는 2015년 9월 13일 노사정 합의문을 조용히 보여주었다. 인사고과의 철이 다가왔다. 사장, 사장의 수족같은 팀장, 팀장의 딸랑이 차장이 나를 평가했다. 나는 저성과자가 됐고 회사는 또 다시 노사정 합의문을 친절하게 들이 밀며 저성과자인 나를... 찢았다. 나는 해고됐다. 다시 일할 수 있을까?



# 2015년 노동 현안 관련 국정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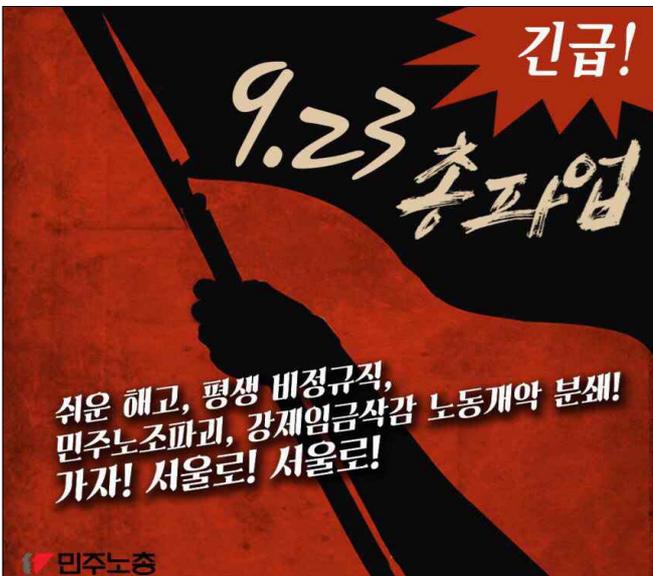
**임금피크제 변경 절차 잘못과 노동탄압...그리고 인권 유린  
필수유지 업무인 교대근무 발전운전원, 보직 축소와 겸직...땀방조...  
하위직은 줄고, 간부는 늘고..... 5,6 직급 처우개선은 언제쯤?  
내부고발자를 징계한 회사...청렴과 내부고발은 결국 쇼였구나?**

2015년도 국정감사가 진행중이다. 노동 관련 현안들 중에는 특히 중부와 남부의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발생했던 불법, 부당노동행위와 인권탄압 사례가 다루어졌다. 남부와 중부는 근로자의 과반을 점유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없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회사가 '개별동의서'를 청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강제로 '찬성동의서'를 강요한 신보령의 김\*\*팀장 사례가 국감장에서 'MBN 뉴스 방송'을



인용하여 소개되면서 회사가 질책을 받았다(홍영표 의원). 또한, 전력생산의 가장 중요한 필수유지업무인 <발전운전원 교대근무 보직>을 땀방조나 겸직, 공식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통상임금 상승분을 몇 푼이라도 안주겠다는 것이라 더 큰 충격을 주었다. 게다가 6직급 처우개선 등을 골자로 한 직장 내 직급에 따른 차별개선을 주문하였다. 실제로 한수원은 6직급 급여 체계를 '일반직급여체계'로 일원화 했다(김제남 의원). 남동발전의 경우는 '내부비리 고발자'를 회사가 그 실명을 공개하고, 심지어 불이익까지 서슴지 않은 사례가 밝혀지면서, 발전회사들의 도덕성이 도마에 올랐다(전순옥 의원).

국정감사는 10월 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전 조합원 서울 집결!(시간, 장소 추후 공지)

노동자 다 죽이고 전국민 비정규직 만드는 박근혜 정권의 노동계약에 맞서, 민주노총은 단위노조 대표자들의 토론과 결의를 바탕으로 긴급중집에서 9.23 총파업을 결정하고 전 조합원 서울 집결 지침을 하달했다!

이번 노동계약 시도는 민주노조가 수십년 투쟁으로 쟁취한 성과들을 일순간에 앗아가려는 음모다!

노예이기를 거부하는 당당한 노동자라면, 마땅히 분노해야 하고, 분노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가자, 서울로!